KR 상생뉴스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 총 사업비 591억원 · 4개 공구 분리발주 –

공단은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간)의 신호설비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는 300㎞/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장설비와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총 532억원 규모의 공사로 오송~공주, 공주~익산, 익산~정읍, 정읍~광주송정의 4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한다.

총 59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은 3개 공구로 나누어 오송~공주, 익산~광주송정 2개 공구를 발주하며, 나머지 공주~익산 구간은 공단이 직접 감독을 시행하여 기술력 축적은 물론 예산 절감(약 20억원)에도 기여하게 된다.

공단은 대 · 중소기업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특정회사 편중 낙찰방지를 위한 「1社 1공구 낙찰제」 등을 적용하여 지역 및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는 오는 9월에 시공사를 선정,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4년도 말에 호남고속철도를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년도 철도 신기술 등록 추진

– 신기술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적용 기반 마련 –

공단은 철도건설에 적용 가능한 철도 신기술 발굴을 위하여 1개월(8월 1일~31일) 동안 철도신기술 개발자 또는 권리 양수자로부터 신기술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신제품 및 신공법 포함)로서, 특허청 및 국토부 등 인증기관의 인증 잔여보호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된 신기술에 대해 각 분야별 10명 이내의 내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경 최종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등록된 신기술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철도건설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07년부터 '철도 신기술 등록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등록된 199건의 신기술 중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등 85건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에 351회 적용하여 약 9억원의 건설비 절감 및 665일의 공사기간 단축 등 철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철도 신기술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 또는 철도공단 녹색철도연구원(☏042-607-4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동일 지역 6년 ·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

공단은 2012년도 하반기 직원 정기인사(전보)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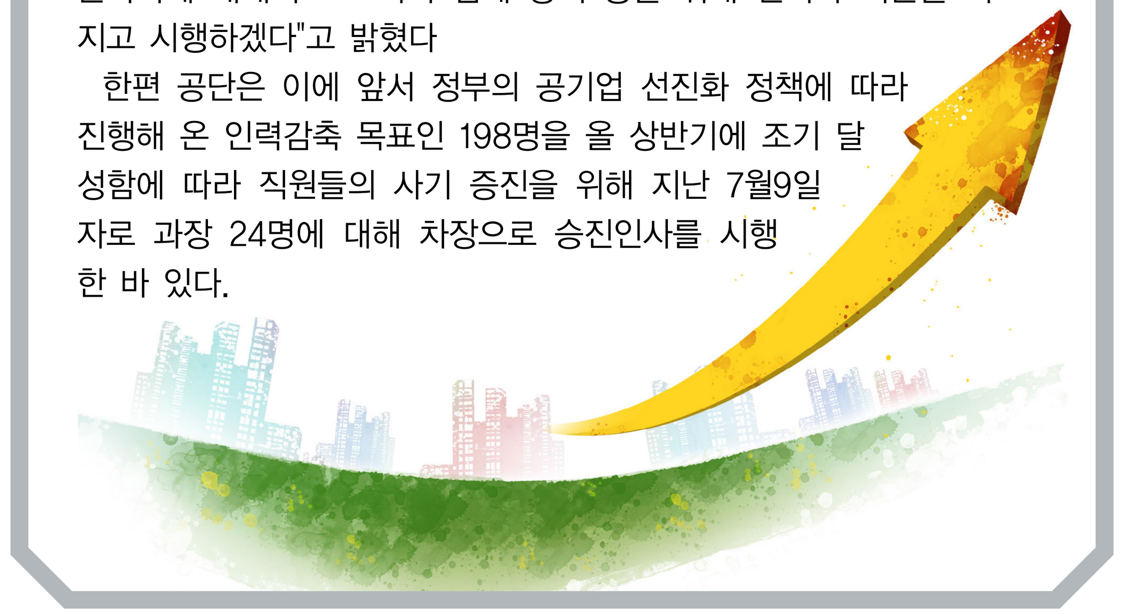
이번 전보 대상은 차장 이하 직원으로서 동일지역 6년 ·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며 전보인원은 전 직원의 16.5%인 180명으로 조직의 선순환, 업무 고착화 방지 · 교류확대 등을 위해 시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위해 사전에 조직진단을 통해 개인별 업무량 편차가 없도록 부서별 정원을 조정한 후 개인별 역량개발계획(IDP), 본인 희망부서, 학부 전공,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능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별로 직접 찾아가 고충상담을 시행한 후 본인 · 가족 애로사항을 대폭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어 "전보희망자 중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정기 인사 시 최대한 포함할 예정"이라며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도 조직의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에 앞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진행해 온 인력감축 목표인 198명을 올 상반기에 조기 달성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지난 7월9일자로 과장 24명에 대해 차장으로 승진인사를 시행한 바 있다.



게시판

주요뉴스(7. 26 ~ 8. 6)

- □ 용문~서원주 복선철도 9월25일 개통(동아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7. 26)
- □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 궤도 건설 돌입(파이낸셜, 서울경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전남일보 7. 26)
- □ KTX 민간 개방 국토부 오락가락(중앙일보 7. 26)
- □ "원주~태백 고속전철 건설 시급"(강원일보 7. 26)
- □ "원주~강릉 복선전철 현 설계 백두대간 훼손 불가피"(강원도민일보 7. 26)
- □ 덕소~서원주 중앙선 복선화 15년만에 완공…9월 개통(서울신문 7. 27)
- □ KR소년단 여수엑스포 관람(파이낸셜,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7. 27)
- □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대전일보 7. 27)
- □ 호남고속철 불공정입찰 논란(매일경제 7. 27)
- □ 인천공항 급유시설 입찰공고 무기한 연기(국민일보 7. 27)
- □ "폭염 · 암흑 속 1시간 30분 공포… KTX 다신 안 타겠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국제신문, 영남일보 7. 28)
- □ '모터 냉각장치' 둘 다 고장… 화재났으면 대참사(조선일보 7. 30)
- □ 20㎞ 터널 속에 승객 560명 가둬놓고 68분 허둥댄 KTX(조선일보, 서울신문, 국제신문, 대구일보 7. 30)
- □ 공항철도 청라 · 영종역 6개월~1년 지연될 듯(경기일보 7. 30)
- □ 철도기지창 이어 물류사업단마저…(충청투데이 7. 30)
- □ "철도 신기술 신청 · 등록하세요"(파이낸셜 7. 31)
- □ 사고연발 KTX, 경쟁이 약이다(서울경제 7. 31)
- □ 코레일, 사고나면 선로사용료 더 낸다(동아일보 7. 31)
- □ 사고지점 5곳 파악도 못한 코레일 "냉각장치 2개 모두 고장, KTX 개통 후 처음"(조선일보 7. 31)
- □ "10분만 정차" 안내방송 후 감감무소식. 승객들, 땀범벅 셔츠? 바지 걷고 고함. 울부짖는 아이들...(조선일보, 중앙일보)
- □ 국내 최장 터널서 5번째 멈춘 KTX...사고 잦아도 너무 잦다(조선일보 7. 31)
- □ 백두대간 망가뜨린다(한겨레 7. 31)
- □ 찜 · 통 · 열 · 차(광주일보 7. 31)
- □ 철도공단 "설계심의 입찰 비리땐 추가 감점"(서울신문 8. 1)
- □ 철도공단 조직문화 개선 청년중역 13명 선정 활동(충청투데이 8. 1)
- □ 또 고장난 KTX…이번엔 김천구미역서 스톱(조선일보 8. 1)
- □ 코레일 "KTX 노후부품 교체-정비"(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8. 1)
- □ 지금 KTX에 필요한 건?(한겨레 8. 1)
- □ KTX 잦은 사고, 테제베 도입이 원인?(경향신문 8. 1)
- □ "금정터널 사고 경사도 · 습도 때문"(매일경제 8. 1)
- □ 코레일 '8년 뒷북' 대책(서울신문 8. 1)
- □ KTX 잦은 사고, 아직까지 매뉴얼 타령인가(한국 31)
- □ "KTX 경쟁체제 도입 · 전월세 안정에 노력"(한국경제 24)
- □ 동해남부선 따라 녹지공간 생긴다(국제신문 11)
- □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부실설계 3번하면 '아웃'(파이낸셜,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8. 2)
- □ 냉기 도는 철도공기업(서울신문 8. 2)
- □ "도내 철도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주오"(전북일보 8. 2)
- □ KTX 뭐가 문제인지 정말 국민은 궁금하다(경향신문 8. 2)
- □ KTX한국형 지침만 만들면 문제없단 말인가?(국제일보 8. 2)
- □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노선 안 만들기로(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8. 3)
- □ 권 국토 "수서발 KTX, 내년초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8. 3)
- □ 금정터널 대피시설 개선하라 7차례 통보에도 코레일 무시 (서울신문 8. 3)
- □ 춘천~속초철도 착수 범도민 서명(강원일보 8. 3)
- □ 10조 빚더미 코레일 2500억 성과급 잔치(매일경제 8. 6)
- □ 민간기업도 역세권개발 참여가능(매일경제 8. 6)
- □ 베이징~선전 고속철 연내 개통(영남일보 8. 6)

철도시설공단, 퇴직연금상담실 운영

– 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설계 지원 –

공단은 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일 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본사와 5개 지역본부에 "KR퇴직연금 상담실"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상담은 공단의 6개 퇴직연금 사업자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일주일에 2회(매주 화 · 목)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에 맞춘 퇴직연금 운영방법과 은퇴설계, 최근 금융정보 공유 및 투자성향분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박진현 노무복지처장은 "상설 퇴직연금상담실 운영으로 개인별 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통해 임직원들이 바쁜 직장생활로 준비하지 못한 노후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역사에 공단 이미지 홍보 강화

– 수인선 8개 역사 승강장 공단홍보물 부착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공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지난 6월 개통한 수인선(오이도~송도간) 8개역사 승강장 구조물(안전난간)에 공단 홍보물(포스터)을 부착하여 공단의 이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홍보물 내용은 '빠르고, 편하고, 안전한 철도 KR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합니다.', 'KR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연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이며, 디자인은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금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왕십리~선릉간 4개 지하역사,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4개 지하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또한 홍보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에서 건설 중인 모든 역사 시설물에 홍보물(포스터)을 부착하여 공단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김문택 기자〉

철도건설현장 집중호우 대비 '끝'

– 호남본부, 집중호우 피해 사전 방지시스템 운영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도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대표적 국가하천인 만경강(전북 익산~김제간)을 횡단하는 호남고속철도 만경강교 공사현장 주변의 강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수위 및 유속을 4~8시간 전에 미리 예측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측 상황을 핸드폰 문자를 통해 담당직원과 현장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3차원 대피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오세영 건설처장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차원 대피 시나리오 : 실제 현장상황을 3차원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장비 및 자재 등의 대치동선과 대치방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경조사

■ 강원본부 사업지원부 전철호 과장의 부친상
– 발인 : 2012년 8월 9일

KR상생뉴스(주간) 발행인 김 광 재 발행일 2012. 8. 10(314호) 편집인 이 종 도 기사문의 (042) 607-3083